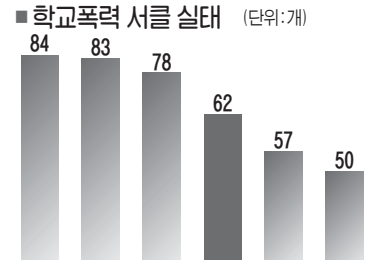


학교 폭력 서클 전남 84개 전국 최다

광주는 62개... 조폭으로 유입 가능성 대책 시급

지난해 전남 지역에서 적발돼 해체된 학교폭력 서클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84개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폭력서클은 사회의 조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승우 새누리당 의원은 28일 전남 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적발돼 해체된 전국 학교폭력 서클 597개 중 전남지역에서만 84개의 서클이 신고돼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전남에서는 지난해 84개의 서클이 신고됐고 적발 인원도 530명에 달했다.

전남 다음으로 학교폭력 서클은 서울(83개)·경기(78개)·광주(62개)·전북(57개)·대구(50개) 등의 순으로 많았다. 인원별로는 전국에서 적발된 6325명 중 경기도가 99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남(927명)·서울(779명)·전남(530명)·부산(497명) 등의 순이었다.

학교 폭력 서클이 해체됐지만 학교 폭력은 여전히 있다. 유 의원이 내놓은 지방경찰청별 '2012년 학교폭력 가해자 검거 현황'에 따르면 전남의 경우 지난 2008년 891명에서 2012년

에는 1321명까지 48.2%나 급증했다. 학교폭력 서클이 해체됐다고는 하지만 자칫 성인 폭력조직과 연결고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한편, 올 들어 8월까지 검거된 학교 폭력 가해자는 모두 1만2011명으로 경기(3192명), 서울(2048명), 부산(822명), 전북(788명), 경북(667명), 경남(591명), 대구(544명), 전남(528명) 순으로 많았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국회의원들에 충성!” 비행국감

국방위 소속 의원들 31일 1전비에서 'HI-TAXI' 행사 T-50 15대 나눠타고 10분간 활주로 주행...논란클 듯

군이 국정감사 현지시찰에서 국회 국방위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대당 250억원에 달하는 T-50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 탑승 체험행사를 열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28일 국회 국방위 소속 의원실 등에 따르면 오는 31일 공군 제1전투비행단에서 열릴 예정인 국정감사 현지시찰에서 국방위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HI-TAXI'(지상고속활주·활주

를 고속으로 달리는 이륙 전 단계) 행사를 한다는 계획안을 받았다.

'HI-TAXI'는 T-50 15대에 국방위 소속 의원 15명을 각자 나눠 태운 뒤 10분간 고속으로 활주로를 달리는 지상고속활주로 일종의 탑승 체험행사다. 군 측은 "공군 작전의 이해 및 조종사의 근무환경 공유와 T-50의 특성 및 우수성에 대한 간접 경험 기회를 의원들에게 제공해주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제는 막대한 예산이 드는 T-50 탑승 체험행사를 계획하면서 초음속 고등훈련기가 15대씩이나 동원될 계획이라는 점이다. 10분짜리 'HI-TAXI'를 진행하면서 T-50 15대를 동원하는 게 적절한 것인지, 또 비용 대비 효율적인 측면에서 공군발전

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는 이번 국감 일정(계획)이 업무 및 현황 파악보다 T-50 탑승 체험에 초점이 맞춰진 것 아니냐는 인상을 주는 대목이다.

군은 이날 부대 소개(30분)·환복 및 비행 브리핑(25분)·HI-TAXI(60분)·오찬(60분)·시물레이션(20분)·조종사 간담회(30분) 등의 일정으로 국감을 치른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계획대로라면 공군 제1전투비행단에 대한 업무 및 현황 파악 시간은 55분이지만, T-50 시승 행사인 HI-TAXI는 60분이 소요된다. 업무 및 현황 파악 시간이 한 시간도 채 안 돼 업무 보고가 충실하게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북구청 국화세상

28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 북구청 1층 광장에서 열린 '2013 시민들과 함께 하는 국화전시회'에 참가한 참석자들이 개막을 축하하는 풍선을 날리고 있다. 북구청 주최로 열린 이번 전시회는 다음달 6일까지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경찰, 11월 30일까지 행락지 등 음주운전 집중 단속

경찰청이 오는 11월 30일까지 전국 주요 행락지와 교통사고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음주·과속·안전띠 미착용 운전 등 법규 위반을 집중단속한다.

특히 음주운전은 올해 광주에서만 혈중 알코올 농도 0.05%이상인 형사 처벌 대상자 적발이 1만명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광주일보 23일자 1면) 되는 등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안정현정부는 2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와 공동으로 교통관련 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 법질서 지키기 범국민 합동 캠페인'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행사 참가자들은 음주운전·졸음운전·산만 운전 안 하기와 안전띠 착용하기 등 교통 법질서 준수를 결의하고 나서 가두캠페인을 벌였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작년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5392명으로 재작년 5229명에 비해 3.1%인 136명 늘었다.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늘어난 것은 지난 2000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다. 작년 10월과 11월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 점유율은 각각 9.2%와 8.9%로 월별 기준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김지용기자 dok2000@연합뉴스

“버릇없이 밥먹고 먼저 누워?”

구례경찰, 친동생 둔기살해 40대 영장

구례경찰은 28일 친동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살인)로 김모(44)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7일 오후 5시30분께 구례군 구례읍 한마을 단독주택 1층 안방에서 저녁 식사 후 딸다툼을 벌이던 동생(42)의 머리를 둔기로 수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이다.

김씨는 1년 전 가정문제와 사업 실패 등으로 고향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에서 "평소 동생이 나와 자신의 처지를 비교하는 말을 자주해 사이가 좋지 않았고, 이날도 그런 말이 나와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례=김동호기자 dhkim@

광주은행 女직원의 지혜 보이스포싱 피해 막았다

최근 보이스포싱 범죄가 늘고 있지만 사건 해결이 부진한 가운데 차분하게 이를 예방한 은행 여직원의 일화가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28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2시께 광주시 광산구 광주은행 한남로지점에 50대 초반의 여성이 찾아왔다. 계좌번호가 적힌 종이를 갖고 "이곳에 498만원을 입금해 달라"는 여성의 모습은 어딘지 이상했다.

불안한 눈동자와 글썽거리는 눈물에 창구에 있던 이효영(여·43) 차장은 보이스포싱임을 직감했고, 이 여성과 대화를 시도했다. "조용히 하고 돈만 입금해달라"며 불안한 모습을 보이던 여성은 이 차장의 친절함 안내로 이내 안정을 찾았고, 이 차장은 동료를 통해 납치됐다는 그녀의 아들과 통화 연결을 시도했다. 이윽고 "등산이라 전화를 받지 못했다"며 아들에게 연락이 왔고, 다행히 보이스포싱 피해에서 벗어난 이 여성은 "고맙다"며 계속해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 차장은 "해야할 일을 했을 뿐이다. 이런 상황에는 누구나 다 나처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희기자 halo@kwangju.co.kr

나원침 (9005) 김장두



황일봉 징역형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일봉 전 광주 남구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황 전 구청장에 대해 2009년 승진청탁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윤현석기자 chadol@

성폭행 알고 이웃모에 1억 뜯은 주부

○성폭행 사건을 미끼로 이웃남성과 그 가족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40대 가정주부가 검찰청.

○28일 나주경찰에 따르면 임모(여·43)씨는 지난해 8월에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A(52)씨가 입양한 딸(10)을 성폭행해 경찰 수사를 받은 사실을 안 뒤 "탄원서를 받아주겠다"며 활동비와 보호비 명목으로 2500여만원을 건넬받았다는 것.

○이어 임씨는 사건을 키우려 A씨의 부인에게 허위 사실을 증언하도록 요구하고, 방송곡을 찾아 사건을 제보하기도 했는데 이후 A씨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42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 등 모두 1억여원을 가로챘다가 구속. /나주=손영철기자 ycsn@

편백경침경용 발목펌프

발목펌프는 혈액순환장애로 인한 고혈압, 당뇨, 비만 등 각종 성인병들을 완전 해결 시켜줍니다.

직경10cm 길이 30cm 높이 7.5cm 편백나무 반원에 경침과 발목펌프 운동을 겸용할 수 있고 소음 진동방지장치와 운동회수를 자동으로 알리는 음성카운터가 내장되어 있어 운동하기 편리하며 취침 시는 경침으로 이용하며 평생 동안 건강을 지켜주는 운동효과가 탁월한 편백경침경용 발목펌프는 당신의 건강을 확실하게 보장합니다.

★특허등록 제30-0630153 발목펌프★

- ▶ 편백 경침 경용 [음성카운터](아파트용) 60,000원
- ▶ 편백 경침 경용 [음성카운터](주거용) 50,000원
- ▶ 편백 경침 경용 발목펌프(아파트용) 40,000원
- ▶ 편백 경침 경용 발목펌프(주거용) 30,000원

제일건강 | 문의전화: 010-7510-2000 | 광주 광역시 남구 진월동 258-1

선암동 전원 주택용지분양

자연과 함께 하는 어등산 빌리지

광산구 선암동 414-17번지 일원
분양면적 7008㎡(87구)
분양가격 전용면적 평당 130만원
각 필지 면적 약150평~420평(분할·합병가능)
현 토목공사 90%진행중

70% 분양완료!

단지설명 자연속 힐링 주거단지

1. 분양면적은 전체가 쓸 수 있는 전용면적입니다.
2. 각 필지별 상·하수도관려 연결공사 완료
3. 각 필지별 건축허가 완료(각종세금 납부완료)
4. 각 필지별 6m도로 접

찾아오시는길: 선운지구, 영광, 아등산골짜기, 호남대학교, 아등산 빌리지

토목속 친환경 명품주거타운

선운공인중개사 | 010-5165-0013 | 010-2475-0933

50년 전통 대를 잇는 한의원

북경당 한의원

알레르기성 비염 축농증 코피 해결 비만클리닉

한의학박사 박상준 원장 | 동신대학교 외래교수 역임

KT, 중앙초교, 금남로, 대한생명, 구.한미쇼핑, 동부소방서, 북경당 한의원

진료/시간: 평 일·오전9시~오전7시, 토요일·오전9시~오전4시, 일요일휴진, 공휴일은 오전진료

진료문의 062)227-7575

신협대출

한도는 캐피탈만큼 높게 ↑
금리는 은행만큼 낮게 ↓

대출한도 최대: 25억원

- 아파트 | 상가 | 원룸 | 나대지 보증을 | 차량 등 모든 담보가능!
- 특례보증 | 햇살론 대출지원!
- 신용대출 - 직장인 | 자영업자 우대!

낮은 금리로 원하는 만큼 최고의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원광신협

- | 공동본점 | 227-4474
- | 금호지점 | 383-4474
- | 풍암지점 | 653-4474